

창, 방패 뚫다...레알 UEFA 챔피언스리그 2연패

유벤투스 4-1 제압

‘2골’ 호날두 득점왕 등극



창이 방패를 뚫었다. 스페인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가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경기 중 하나인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4일 영국 웨일스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결승전에서 2골을 몰아넣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앞세워 4-1로 승리했다.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대회 개편 이후 처음으로 2연패에 성공했고, 통산 12회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늘렸다.

12골을 넣은 호날두는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11골)를 제치고 대회 득점왕에 올랐다. 아울러 개인 통산 600골 금자탑을 쌓았다.

이번 대회 최다 골을 기록한 ‘공격의 팀’ 레알 마드리드는 4-3-1-2 전술로 경기에 나섰다.

호날두와 카림 벤제마가 두 톱으로 나섰고 포백라인으로 수비 진형을 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르스 베일은 벤치를 지켰다. 반면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2경기에서 3골만 허용하며 무패로 결승에 진출한 ‘수비의 팀’ 유벤투스는 3-4-1-3 전술로 맞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 팀 공격수 이과인에게 헤딩 슈트와 중거리 슈트를 연거푸 허용하는 등 초반 흐름을 내줬지만 호날두의 골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20분 다니엘 카르바랄의 오른쪽 땅볼 크로스를 호날두가 눈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다. 공은 상대 팀 보누치의 발에 살짝 맞고 휘어들어가 골문을 갈랐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곧바로 실점을 허용했다. 전반 27분 유벤투스 만주키치가 페널티 지역 왼쪽 구석에서 이과인의



4일 영국 카디프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를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오른발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기록했다.

동점을 허용한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상대 팀의 견고한 스리백 수비에 막혀 정확한 슈팅을 날리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에서 볼 점유율 54%를 기록했지만, 슈팅은 5개, 유효슈팅은 1개에 그쳤다. 반면 유벤투스는 낮은 점유율에도 슈팅 8개, 유효슈팅 4개를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에 창끝을 날카

롭게 다듬어 총공세에 나섰다.

후반전 초반 루카 모드리치와 마르셀로가 중거리 슈트와 상대 골키퍼 부폰의 손끝에 막혔지만, 후반 16분 골을 터뜨렸다. 토니 크로스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나오자 카세미루가 먼 거리에서 오른발 중

거리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상대 팀 사미 케디라를 맞고 살짝 굴절된 공이 골대 왼쪽 구석에 꽂혔다.

3분 뒤에는 상대 진영에서 뺏은 공을 모드리치가 오른쪽 크로스로 연결했고, 호날두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슈팅으

로 연결해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39분 상대 팀 후안 코드라도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후반 45분엔 마르코 아센시오가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며 추포를

호랑이 힘겨웠던 한 주... 그래도 '유종의 미'

감기몸살 최형우 이틀 연속 선발 제외...양현종·김진우 난조로 삼성에 2패 뒤 1승



다시 찾은 대구에서 희비가 엇갈린 최형우(KIA)와 강한울(삼성)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세 번째 시리즈를 위해 대구를 찾았다. '호랑이 군단'의 두 번째 대구 방문. KIA는 지난 3월31일 삼성 안방에서 2017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첫 대구 방문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이는 FA를 통해 유니폼을 갈아입은 최형우와 강한울이었다. 100억 벅을 깨고 FA 신분

으로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와 FA 보상 선수로 삼성으로 떠나야 했던 강한울, 두 사람의 한 타석 한 타석도 관심사였다.

앞선 대구별 만남에서는 최형우가 웃었다. 최형우는 개막전에서 결승타를 때리며 친정을 상대로 KIA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고, 강한울은 개막전에서 승구 실책을 냈다.

최형우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리를 부르는 선취점을 올리며 팀의 위닝 시리즈에 역할을 했다. 강한울은 이날 첫 타석에서 안타를 쳤지만 험살에 걸려 벤치로 돌아갔다.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팀이 3-16으로 팀이 크게 지기는 했지만 최형우는 시즌 첫 홈런을 친정팀 외야로 날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두 번째 친정 나들이에서는 최형우가 웃지 못했다.

최형우는 지난 2·3일 두 경기에 나와 7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볼넷 2개를 골라내기는 했지만 삼진은 3개를 기록하는 등 4번 타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형우의 침묵 속 삼성의 신예 투수들 공략에 실패한 KIA는 3일에는 연장전 끝에 역전패를 당하는 등 힘겨운 주말 3연전을 치렀다.

여기에 4일 최형우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강한울은 이날 경기목적 중세를 뺐지만 최형우는 이를 훈련을 쉬어가면서 컨디션 조절에 나섰지만 결국 이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4일 KIA 덕아웃을 찾은 강한울은

옛 동료들에게 “하던 대로 해라. 살살해라”는 농담을 들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 2일 9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 호수비 열전을 펼치며 KIA의 공격을 봉쇄했던 강한울은 팀이 시즌 첫 4연승에 성공한 3일에는 팬스 맞는 2루타 등 멀티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KIA는 양현종·김진우의 난조 속 최형우의 부진까지 겹치며 공·수에서 힘겨운 한 주를 보냈다.

지난 5월27일 롯데전 멀티 히트 이후 최형우는 무안타와 1안타의 경기를 반복했다. 지난 1일 NC와의 경기에서는 7-8로 뒤진 9회 1사 1루에서 병살타를 때리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최형우의 움직임이 그대로 경기 결과에 반영되면서 최형우의 컨디션 회복이 1위 수성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감기몸살에 걸린 '해결사'의 부진이 아쉬웠던 한 주, 두 번째 친정 방문이었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

지소연의 첼시, 잉글랜드 女슈퍼리그 우승

버밍엄 시티에 2-0 승...맨시티에 골득실 앞서 1위 확정

잉글랜드 여자축구 무대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26·첼시 레이디스)이 또 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소연의 소속팀 첼시는 4일(한국시간) 열린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스프링시즌 최종 8라운드 경기에서 버밍엄 시티를 2-0으로 꺾었다.

이로써 첼시는 6승1무1패(승점 19)를 기록해 맨체스터 시티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첼시 +29, 맨시티 +11)에서 크게 앞서 우승을 확정했다.

첼시의 WSL 우승은 창단 후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첼시는 지난 4월 여자 FA컵

4강 패배를 안겼던 버밍엄에 설욕하며 정상 복귀를 지속했다.

지난달 29일 리버풀전 7-0 대승 때 시즌 4호 골을 터뜨렸던 지소연은 이날 선발로 카렌 카니, 프랜 커비와 공격 3각 편대를 이뤄 후반 막판 교체 직전까지 90분을 뛰며 승리와 우승 확정에 앞장섰다.

첼시는 전반 22분 카렌 카니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뽑은 데 이어 후반 13분 프랜 커비가 추가 골을 넣어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시즌을 마친 지소연은 오는 10일 귀국해 국내에서 쉬며 다음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또 승리 농친 팻던 “괜찮아요”

덕아웃 T 특독

▲괜찮아요 = 대구에서 다시 한번 쓴 웃음을 지은 팻던이었다. 팻던은 지난 4월 1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를 통해서 KBO리그에 데뷔했다. 이날 팻던은 7회까지 무실점의 호투를 한 뒤 6-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9회 7실점을 한 불펜 탓에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팀은 연장 승부 끝에 9-7로 승리했고, 팻던은 “괜찮다. 팀이 승리했으니까 됐다”고 웃었다. 그리고 지난 3일 한달 여 만

에 다시 찾은 대구. 6회 투 아홉까지 소화한 팻던은 5-3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이번에도 믿었던 필승조 김윤동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날렸다. 이번에는 경기가 연장 10회 승부에서 터진 박해민의 끝내기 안타로 삼성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구에서 잇달아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팻던은 “괜찮다. 다음에는 더 좋은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며 웃었다.

▲윤동이랑 같이하겠습디다 = 임기영의 각별한 친구사랑(?)이다. 임기영과 김윤동은 경북고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각별한 친구 사이다. 투수초 막내로 실과 바늘

처럼 움직이면서 물심부름 등을 해왔던 두 사람에게선 얼마 전 바깥은 엔트리 등록 소식도 들었다. 고졸 2년차인 우안 남재현이 지난 2일 처음 1군에 등록되면서 두 사람이 막내 신세를 면하게 된 것이다. 4일 훈련이 끝난 뒤 덕아웃으로 돌아온 임기영을 향해 김기태 감독은 “밑에 하나 들어와서 좋냐? 잘 챙기고 막내가 못하면 네가 혼나는 것이다”고 웃었다. 그러자 임기영은 “(혼나는 것은) 윤동이랑 같이 하겠습디다”라고 답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 챔피언스필드가 더 멀었어요 = 고졸 2년 차의 잊지 못할 한 주였다. 남재현은 지난 2일 삼성전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남재현은 1-4로 뒤진 8회 등판해 연속 3안타를 맞으며 진땀을 흘렸다. 구자욱을 삼진으로 처리하면 생애 첫 아웃

카운트를 잡은 남재현은 1실점은 했지만 무사안무 위기를 넘기며 자신의 생애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남재현은 “사람들이 많아서 마운드에 가는 도중에는 떨렸는데 막상 공을 던지니 별로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챔피언스필드 등판이 더 떨렸다고 웃었다. 남재현은 지난 5월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경찰청과의 퓨처스리그 ‘만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다. 남재현은 “1군이 처음이라서 다 신기하다. 맞아요 자신 있게 대결하자고 생각했다. 첫 등판을 하고 아직 떨었다는 것을 배웠다. 확실히 1군 타자들은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잘 친다. 좋은 경험을 했다. 더 많이 배우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 내일 선발 등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이 6일 오전 11시 10분(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MLB닷컴의 켄 거니 기자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4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6~8일 워싱턴과의 3연전에 나설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시리즈 첫 경기에 류현진이 나서고, 브랜던 매카시와 클레이턴 커쇼가 차례로 2, 3차전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빅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워싱턴과 대결한다. 메이저리그 5년 차인 류현진은 그간 내셔널리그 14개 팀 중 워싱턴을 뺀 13개 팀과 모두 맞붙었다.

덕장 터스티 베이커 감독이 이끄는 워

싱턴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개 팀 중 유일하게 5할이 넘는 승률로 압도적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팀 타율(0.279), 팀 홈런(82개), 팀 득점(299점), 팀 장타율(0.480) 모두 리그 1위를 달려 류현진에게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호투하던 좌완 투수 알렉스 우드가 왼쪽 흉쇄관절 염증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사이 선발로 복귀한 류현진은 워싱턴을 상대로 선발 로테이션 수성을 가능할 중요한 일전을 치를 전망이다.

류현진이 워싱턴의 장타를 피해 2회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펼친다면 선발로 잔류할 확률이 높지만, 경기 초반 장타와 집중타를 얻어맞는다면 다시 불펜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